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11. 25.(화) 15:00 (2025. 11. 26.(수) 조간) 배포 2025. 11. 25.(화) 9:00

# 원안위, 국내 10개 항공사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논의

- 원안위, 2,400회 우주방사선 실측값 검증 결과 공유
- 한국항공협회, 피폭선량 관리 우수 사례 공유

원자력안전위원회(위원장 최원호, 이하 원안위)는 25일(화) 한국항공협회(서울 강서구) 대회의실에서 **국제항공 노선을 운영하는 국내 항공사*를 대상**으로 **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, 현장의 건의사항을 논의**하는 **간담회**를 개최하였다.

* (참석 기업)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에어로케이, 에어부산, 에어제타, 에어프레미아, 제주항공, 진에어, 티웨이항공, 파라타항공 등 10개

이날 간담회에서 원안위는 '23년 6월부터 우주방사선 안전규제가 원안위로 일원화된 이후, **각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 중인 승무원 피폭선량 전산시스템과 승무원 건강진단 관리의 적절성을 점검**한 결과를 공유하였다.

또한, 우주방사선 노출이 많은 승무원의 피폭선량 관리를 체계적·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지난 **1년간 약 2,400회에 걸쳐 직접 측정한 우주방사선 실측값**에 대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**국내 항공사가 사용 중인 승무원 피폭선량 평가 프로그램**이 **기준에 부합함을 확인**하고 **그 결과도 공유**하였다.

한편, **한국항공협회**는 일부 항공사가 승무원 피폭선량 관리 기준인 **연간 6밀리시버트(mSv) 이하 선량 구간에서도 피폭선량을 세밀하게 관리한 피폭 관리 우수사례*를 소개**하였다.

* (에어프레미아) 운항승무원은 피폭선량에 따라 모니터링·위험군 분류·스케줄 조치·스케줄 배제로 관리하고, 객실승무원은 피폭선량이 연간 5.0~5.5 mSv에 도달하면 스케줄 조정

이와 함께, 북극항로 비행횟수 제한, 고위도·저위도 근무의 균형 배분, 고위도 비행 시 고도 하향 등 **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승무원들의 관심사항을 조사하여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**하였다.

최원호 위원장은 "**지난 1년은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**가 **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정비**해 온 기간이었다"라고 평가하며, "승무원들이 **실제로 안전관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제도 이행**과 함께 **승무원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**"라고 말했다.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 | 방사선방재국<br>생활방사선안전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태윤 (02-397-7312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권혁동 (02-397-7334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